

# 백석과 강소천의 문학적 상관성 연구

이 동 순 (조선대)

## < 목 차 >

- |                         |                     |
|-------------------------|---------------------|
| 1. 서론                   | 3. 백석과 강소천의 문학적 상관성 |
| 2. 백석과 강소천, 같은 행로 다른 선택 | 4. 결론               |

## 국문초록

이 글은 백석과 강소천의 문학적 인연과 생애를 중심으로 언제까지 관계를 유지하였는지 살핀 다음, 백석과 강소천의 문학적인 영향관계와 문학적 상관성을 규명하였다. 백석과 강소천의 관계를 논하면서 백석이 「호박꽃초롱 서시」를 쓴 것은 서신을 통해서였을 것으로 추정해 왔다. 그러나 강소천의 동요시집 『호박꽃초롱』이 나온 시기에 백석과 강소천은 만주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백석이 강소천의 시집 간행을 도와주었을 것은 자명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호박꽃초롱 서시」를 쓰게 된 것이다. 비록 백석과 강소천은 한국전쟁을 기점으로 배제와 선택의 논리에 따라 창작활동의 생명이 결정되고 말았지만 작품은 이들이 주고받은 영향이 여실하게 남아있다.

백석이 제자였던 강소천에게 영향을 미쳤듯이 백석도 강소천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백석은 강소천을 지도할 때부터 자연스럽게 아동문학에 관심을 가지고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백석의 동화시는 형식적으로 강소천 '문답식 동요'와 같고, 내용상으로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같다. 이것으로 미루어보면 백석이 강소천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백석과 강소천은 문학적으로 그 영향을 주고받았다고 할 수 있다.

## 1. 서론

작가는 작품에 한 순간에 형성된 문학정신의 구현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많은 작가들과 작품들과 환경의 영향을 체화하여 온전히 자기의 목소리를 담는다. 그러면서도 절대적인 영향을 받은 작가나 환경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상호텍스트성을 밝히는 연구를 통해 영향관계를 규명하여 왔다. 이 글에서 다루게 될 백석과 강소천은 스승과 제자라는 특수한 관계에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문학적 영향관계를 밝히는 연구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는다. 공교롭게도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백석과 강소천의 삶과 문학적 성과를 정리한 『백석평전』<sup>1)</sup>과 『강소천평전』<sup>2)</sup>이 발행되었다.

두 권의 평전에도 백석과 강소천의 관계를 스승과 제자였다는 사실에 바탕해서 둘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특히 백석이 강소천의 동요시집 『호박꽃초롱』<sup>3)</sup>의 「호박꽃초롱서시」를 쓴 것에 주목하여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백석평전』과 『강소천평전』 어디에도 강소천의 동요시집 『호박꽃초롱』이 나온 이후의 관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두 권의 평전대로라면 백석과 강소천은 영생고보를 떠난 뒤 서신교환으로 강소천의 동요시집 『호박꽃초롱』 발간 이후 둘의 관계는 끝이 난다. 과연 백석과 강소천의 인연은 거기서 끝이 났고, 그 이상의 관계는 지속되지 않았던 것인가. 그리고 백석과 강소천은 스승과 제자를 떠나 그 이상의 어떤 관계는 없었을까. 이런 의

1) 안도현, 『백석평전』, 다산책방, 2014.

2) 박덕규, 『강소천평전』, 교학사, 2015.

3) 강소천, 『호박꽃초롱』, 박문서관, 1941.

문은 그동안 연구에서 밝혀내지 못했던 백석과 강소천의 관계를 따져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따라서 이 글은 먼저 백석과 강소천의 문학적 인연과 생애를 중심으로 언제까지 관계를 유지하였는지 살핀 다음, 백석과 강소천의 문학적 영향관계와 문학적 상관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 <발굴사진 공개>



백석(오른쪽에서 두 번째), 김관식 추정(영생고보 교장, 오른쪽에서 세 번째 남자), 양동만(영생고보 교감, 오른쪽에서 네 번째 남자), 시인 김동명 추정(왼쪽에서 세 번째 남자)

## 2. 백석과 강소천, 같은 행로 다른 선택

백석과 강소천은 모두 북쪽 지방 출신이다. 백석은 1912년 7월 1일 평안북도 정주군 갈산면 익성동에서 나고 자랐고, 강소천은 1915년 9월 16일 함경남도 고원군 수동면 미둔리 342번지에서 나고 자랐다. 백석이 영생고보에 영어교사로 부임할 때 강소천은 영생고보 학생이었다. 백석은 영생고보에 부

입하기 전 조선일보사 근무하면서 『조광』 창간에 참여하였고, 1935년 8월 30일자 <조선일보>에 시 「정주성」을 발표하여 시인의 이름을 갖게 되었다. 백석은 첫 시를 발표한 지 8개월 만인 1936년에 1월에 시집 『사슴』까지 발간하면서 문단의 주목을 받았다. 강소천도 백석이 부임하기 전인 1930년에 『아이생활』에 첫 동요 「버드나무열매」를 시작으로 『신소년』과 『어린이』, 『소년』 등의 잡지와 <매일신보>, <조선일보>, <조선중앙일보> 등에 많은 동요를 발표하여 이름난 소년문사였다.

강소천은 1931년 영생고보에 입학, 1935년에 1년간 휴학을 하고 간도 용정에 머물다가 1936년에 복학하였는데 백석이 1936년 4월 부임한 것이다. 그렇게 스승과 제자가 되었다. 강소천은 백석의 애제자가 되어 백석의 하숙집을 드나들면서 시를 배웠다. 1936년 3월 영생고보를 졸업한 이달호는 “내 옆자리 건너에는 강소천이가 있었는데 그는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듣지 않고 시”<sup>4)</sup>만 썼다. 강소천은 백석의 지도하에 창작에 열을 올렸다. 그런 강소천에게 백석은 전문작가가 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한 것이다. 이 둘은 학교 안에서 보다는 학교 밖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몇 사람의 증언은 매우 구체적이다. 아래는 영생고보시절의 백석과 강소천의 각별한 관계를 보여주며, 이후 지속되는 관계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1937년 봄, 영생고보의 학교 분위기는 그야말로 최고조였다. 서고도 목사, 김관석 교장, 시인 김동명 그리고 백석, 백석의 수제자인 아동문학가 강소천 등이 학교에 있었다. 강소천은 아예 졸업을 1년 연기하면서까지 백석의 하숙집을 매일같이 드나들었다.

강소천은 학교의 정규 수업에는 아예 관심도 없었다. 백석의 집으로 찾아가 문학에 관한 이론이며 실기를 백석에게서 직접 배웠다. 또한 일찍 학교를 졸업하면 백석 선생과 헤어진다며 일부러 유급해 학교를 계속 다니며 매일같이 백석의 하숙집을 찾았다.<sup>5)</sup>

4) 송준, 『시인 백석』 1, 횡당나귀, 2012. 278면.

5) 송준, 『시인백석』 1, 횡당나귀, 2012. 347면.

위의 상세한 증언에 따르면 강소천은 백석의 하숙집으로 찾아가 ‘문학에 관한 이론이며 실기를 백석에게서 직접 배’운 만큼 백석은 강소천을 아꼈고, 강소천은 스승을 따르고 존경하였다. 그리고 강소천은 1937년 봄에 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일찍 학교를 졸업하면 백석 선생과 헤어진다’는 이유에 ‘유급’을 하고 ‘백석의 하숙집을 매일같이 드나들었’던 것이다.

그리고 위 증언대로라면 강소천은 1937년 봄에 졸업했거나 1938년에 졸업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증언과 사뭇 다르게 연구자가 입수한 영생고보 「회원명부」에는 강소천의 이름이 없다. 강소천과 함께 학교를 다녔던 전택부는 영생고보 5회 졸업생으로 1937년 졸업하였다. 그는 영생고보 동창회장(동문회장)으로 활동하였고 영생고보 「회원명부」를 발행했다.<sup>6)</sup> 전택부는 강소천이 월남하였을 때 편집하고 있던 『새벗』을 강소천에게 넘겨주고 『사상계』로 자리를 옮길 만큼 막역한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원명부」에 없는 것은 강소천이 영생고보를 졸업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강소천 연보에는 강소천이 1937년 23세 때 영생고보를 졸업한 것으로 정리되어 있다.<sup>7)</sup>

백석은 1938년 2월 영생고보를 떠나 조선일보사를 거쳐 일제의 강압을 피해 1940년 2월 만주로 떠났다. 백석은 만주에서 <만선일보> 기자와 만주국 협화회 중앙본부 홍보과 일을 겸하고 있던 박팔양을 만났다. <만선일보>는 만주국 기관지나 다름없는 신문이었고, 만주국협화회는 “만주 강점의 전위 부대요, 만주국 건국이념이라던 오죽협화·왕도낙토 사상의 선전지기관이며, 독립군을 비롯한 반만 항일세력 탄압의 주구부대”<sup>8)</sup>였다. 박팔양의 주선으로 1940년 3월부터 6개월간 만주국 국무원 경제부에서 근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석은 <만선일보>에 한 편의 시도 발표하지 않았다. 대신 박팔양이 시집 『여수시초』를 발간하자 「슬픔과 진실-여수 박팔양씨 시초 독후감」<sup>9)</sup>, 수필 「조선인과 요설」<sup>10)</sup>를 발표하여 박팔양에게 인사치레를 하

6) 영생고보동창회, 『회원명부』, 1988. (회원 명부 어디에도 강소천의 이름은 확인되지 않는다. 영생고보는 1940년 日出中學校로 교명이 바뀌었다.)

7) 박덕규, 『강소천평전』, 교학사, 2015.

8) 임종국, 『일제침략과 친일파』, 청과, 1982. 00면.

9) 만선일보, 1940. 5. 9~10.

는 것으로 끝났다. 이렇게 백석이 만주에서 생활했다는 것은 <만선일보>에 글을 통해서 확인되었다.

만주에서 백석의 행적이 <만선일보>를 통해 확인되었듯이, 강소천의 만주에서 행적도 <만선일보>를 통해서 확인된다. 강소천은 “간도에 가서 1년 정도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작품”<sup>11)</sup>을 썼다. 그리고 <만선일보>에 「숨막곡질」<sup>12)</sup>, 「인형의 자장가」<sup>13)</sup>, 「눈 온 아침」<sup>14)</sup>, 「내이름」<sup>15)</sup>을 발표하였다.<sup>16)</sup> 강소천이 <만선일보>에 작품을 발표한 시기를 보면 적어도 1940년 10월부터는 만주에 있었다. 만주에는 강소천의 사촌누이 허홍순이 살고 있었다. 강소천은 1935년에도 허홍순의 집에서 1년간 머무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강소천의 만주행은 전혀 어색하지 않다. 이렇게 백석은 만주국 국무원 경제부에 근무하고 있었고, 강소천은 사촌누이 허홍순의 집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둘이 만주에서 만났을 것은 자명하다. 이렇게 되면 『백석평전』과 『강소천평전』에서 주장한 백석이 「호박꽃 초롱 서시」를 우편으로 써서 보냈을 것이라는 추정은 말 그대로 추정에 불과한 일이 된다.

1941년 2월, 함흥 영생고보에서 시를 가르쳤던 제자 강소천이 동시집 『호박꽃 초롱』을 경성 박문서관에서 발간했다. 박문서관은 개화계몽시대와 식민지시대에 국내 최대 규모의 출판사였다. (중략)강소천 동시집 장정은 백석의 친구

---

10) 만선일보, 1940. 5. 25-26.

11) 박경수, 「「만선일보」 소재 동시연구」, 『우리문학연구』, 우리문학연구회, 2013. 431면.

12) 만선일보, 1940. 10. 20.

13) 만선일보, 1940. 12. 7.

14) 만선일보, 1940. 12. 13.

15) 만선일보, 1941. 1. 16.

16) 박경수는 「「만선일보」 소재 동시연구」에서 ‘아저시’와 ‘笑泉’도 강소천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으나 강소천은 강용률(강용률)과 강소천(강소천)등의 필명을 사용하다가 1933년 『어린이』에 입선동요 「곰단이」의 평을 들은 후 강소천 외의 이름으로 작품을 발표한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저시’와 ‘笑泉’은 강소천이 아니다.

인 당대 최고의 장정이 정현웅이 맡았다. 백석이 중간에서 정현웅의 솜씨를 강소천 동시집에 입혀주는 역할을 했을 공산이 크다. 백석은 이 동시집에 「『호박꽃초롱'서시』」라는 제목으로 시 형식의 서문을 써주었다.<sup>17)</sup>

소천의 동요시집 『호박꽃초롱』이 박문서관에서 발간되는 데 백석이 산과역을 했다고 추측되지만, 사실 백석은 1938년 하반기에 이미 함흥을 떠났고, 같은 해 겨울 중국 신경에 있었다. 따라서 백석은 『호박꽃초롱』의 실제적인 발간 과정에는 깊이 관여할 수 없었다. (중략)

백석은 『호박꽃초롱』 발간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는 없었지만 소천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호박꽃초롱'서시』도 발간 이전에 넘겨주고 갔거나 아니면 시집 발간 즈음에 신경에서 우편으로 전해 주었으리라 짐작된다. 또 『호박꽃초롱』에 수록된 시가 33편으로 백석의 『사슴』에 실린 편수와 같다는 점, 동화 2편을 더하여 전체를 『사슴』과 같은 전4부로 나누었다는 점에서 백석에 대한 소천의 존경심을 짐작할 수 있다. 『호박꽃초롱』의 장정을 맡은 정현웅이 백석과 절친한 사이였다는 점에서 소천을 정현웅에서 소개한 사람이 백석이었으리라는 추측도 가능하다.<sup>18)</sup>

두 권의 평전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백석이 정현웅에게 표지화와 장정을 맡긴 것은 확실하다. 그런데 어떻게 맡겼을까. 백석의 「북방에서-정현웅에게」가 발표된 것은 1940년 7월 『문장』이다. 그리고 강소천의 동요시집 『호박꽃초롱』의 출판일은 1941년 2월이다. 이것을 보면 백석이 시 「북방에서-정현웅에게」를 보낼 때 강소천의 출판원고를 함께 보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당시 정현웅은 아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 때이고, 원고를 읽고 표지화를 그리는데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백석과 강소천이 함께 만주에 머물지 않았으면 일련의 것들이 한 순간에 이뤄지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백석이 강소천의 『호박꽃초롱』에 「호박꽃초롱 서시」를 어떻게 썼을까 하는 의문은 쉽게 풀린다. 뿐만 아니라 시집의 구성과 편집체제, 출판사문제까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강소천과 백석이 만주에서 만나지

17) 안도현, 『백석평전』, 다산책방, 2014. 251면.

18) 박덕규, 『강소천평전』, 교학사, 2015. 114-116면.

않았다면 민족저항시집으로 평가되는 『호박꽃초롱』이 발간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호박꽃초롱』이 발간되자마자 1941년 2월 22일 <만선일보>에 “백석의 서시가 프랑시스 잠의 것처럼 순박하게 마음을 맑게 한다”는 평까지 실린 것을 보면 백석과 강소천은 만주에서 시집을 발간을 준비했고, 시집이 나온 후에도 한동안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강소천의 동요시집 『호박꽃초롱』이 발간 된 후 해방기까지 백석과 강소천의 행적은 자세하지 않다. 백석은 1942년 안동 세관에 잠시 근무하다가 1945년 해방이 된 후 평양에 머무르면서 고당 조만식의 통역비서로 활동했다. 그리고 러시아 문학작품 번역에 집중하였다. 강소천은 동요시집 『호박꽃초롱』을 발간하고 얼마 후에 고향인 고원군 미둔리로 돌아와 미둔리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 고원중학교, 청진제일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했다.<sup>19)</sup> 해방 후 한국 아동문단은 “성인문단처럼 좌우익의 사상대립으로 서로 맞부딪쳐 논전을 펴거나, 투쟁을 전개하는 사태로 발전하지는 않았다. 다만 아동들에게 훈화와 작품을 통해서 자기의 사상적 지론을 전개하고 또 합리화시켜”<sup>20)</sup>갔다. 그런 분위기에서 백석과 강소천은 1947년 12월 평양에서 북한공산당 허부 조직인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에 가입하여 백석은 외국문학 위원, 강소천은 아동문학 위원으로 북한문단에서 해후하고 함께 활동하였다. 이때 백석은 러시아 문학작품 번역에 몰두하였지만 강소천은 『아동문학』에 동화 「정희와 그림자」<sup>21)</sup>와 동요 「자라는 조선」<sup>22)</sup>, 「나두 나두 크며은」<sup>23)</sup>을 『아동문학집』에 「둘이 둘이 마주 앉아」<sup>24)</sup>, 『소년단』에 소년시 「가을 들에서」<sup>25)</sup>를 발표하는 등 북한문단에서 부지런히 작품을 발표하였다. 이렇게 백석과 강소천은 북한문단에서 함께 활동하였다. 그러나 한국전쟁 때 백석은 북한에 남

19) 박덕규, 『강소천평전』, 교학사, 2015. (강소천 생애 연보 참고)

20) 이재철, 『한국 현대 아동문학사』, 일지사, 1978, 325면.

21) 강소천, 「정희와 그림자」, 『아동문학』, 1947. 7.

22) 강소천, 「자라는 조선」, 『아동문학』 4, 1949. 6.

23) 강소천, 「나두 나두 크며은」, 『아동문학』 6, 1949. 12.

24) 강소천, 「둘이 둘이 마주 앉아」, 『아동문학집』 1, 1950. 6.

25) 강소천, 「가을 들에서」, 『소년단』 1(4), 1949. 8.

고, 강소천은 흥남부두를 통해 홀로 월남하였다. 거기서 백석과 강소천의 인간적인 인연은 끝이 났다.

백석은 북한에서 문학 활동을 했고, 강소천은 남한에서 문학 활동을 했다. 분단 초기에 백석은 동화시를 발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으나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와 교조주의로 흐르는 문학에 동조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종파분자로 몰려 양강도 삼수군 관평리 농업협동조합 축산반에 배치되어 양을 길렀다. 1962년 10월 북한 문화계에 북고주의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자 일체 창작활동을 하지 못하고, 쓸쓸한 생을 살다 1996년 85세로 세상을 떠났다. 반면 강소천은 월남한 부산에서 문협 정통과의 자기 확인의 최종지점인 다방을 근거지<sup>26)</sup>로 남한 문학의 핵심 축을 이룬 김동리와 손소희를 만남으로써 전쟁 후 한국문단 형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이후 그는 한국아동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로 남한 아동문단의 중심에서 활동하다가 1963년 5월 6일 49세의 짧은 생을 마감하고 세상을 떠났다. 백석은 1962년 5월 『문학신문』에 동시 「나루터」로, 강소천은 1963년 1월 동화집 『어머니의 초상화』로 모든 창작활동에 마침표를 찍었다. 창작활동이 끝난 원인은 다르지만 백석과 강소천은 아이러니하게도 비슷한 시기에 작품 활동이 끝났다. 백석과 강소천은 스승과 제자로, 그리고 같은 문학인의 길을 걸었지만, 백석은 북한문학에서 배제되었고, 강소천은 남한 아동문학의 중심에 있었다. 두 사람은 문학인으로 같은 길을 걸었으나 배제와 선택의 논리에 의해 창작활동의 생명이 결정되고 만 것이다.

### 3. 백석과 강소천의 문학적 상관성

백석과 강소천의 문학적 영향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기 전에 백석의 시집 『사슴』과 강소천의 동요시집 『호박꽃초롱』의 편집체제를 살펴볼 필요가

26) 김윤식, 「땅끝 의식과 가부장제-말다윈시대와 실존무」, 『김동리와 그의 시대』, 민음사, 1995.

있다. 백석의 시집 『사슴』은 4부 구성에 시 33편과 산문 2편이 실려 있다. 강소천의 동요시집 『호박꽃초롱』도 총 4부 구성에 동요시 33편과 산문 2편이 실려 있다. 『사슴』과 『호박꽃초롱』의 편집체제가 같다. 백석이 한 편의 친일시를 남기지 않았다는 점과, 강소천은 한글사용이 엄격하게 금지되었던 시기에 순한글 동요시집 『호박꽃초롱』을 간행하였다는 점도 같다. 백석은 강소천을 아끼던 스승이었고, 강소천은 시인 백석을 존경하였던 제자였던 만큼 두 시인은 투철한 문학정신과 철저한 민족의식의 소유자였던 것이다. 백석과 강소천이 만주에 머무르면서 강소천의 동요시집을 발간한 것은 사제지간으로서 뿐만 아니라 문학인으로서도 의기투합한 결과였다.

백석은 1936년 1월에 시집 『사슴』을 발간하였고, 4월부터 영생고보 영어 교사로 부임하였으니 백석이 강소천에게 준 영향은 백석으로부터 문학 지도를 받기 전과 후의 작품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강소천은 동요시집 『호박꽃초롱』에 실린 33편 중 발표한 서지가 미확인된 작품 5편을 제외하고 28편 중 백석의 지도를 받기 전에 발표한 작품 54편 중 14편이 수록되었고, 지도를 받은 후에 발표한 작품 32편 중 14편이 수록되었다. 작품성을 기준에 놓고 작품을 선별했을 것이므로 백석이 지도한 후의 작품이 더 많이 실렸다. 스승 백석과 제자 강소천은 첫째는 주목을 받은 장르가 운문이었다는 점이고, 둘째는 동화를 썼다는 점이다. 백석이 강소천에게 동요 창작에 영향을 미쳤다면, 강소천은 백석에게 동요와 동화 창작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백석은 분단 이전에는 시를 쓴 시인이었다. 그가 등단한 것은 1930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단편 소설 「그 모와 아들」이었지만 그 후로는 시만 썼다. 그런 그가 남북분단 후에는 아동문학가로 변모한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백석은 1942년부터 1947년 말까지 단 1편의 시도 발표하지 않았다.<sup>27)</sup> 친구 허준이 갖고 있던 시 「적막강산」은 1947년 12월 『신천지』에, 「마을은 맨천 구신이 돼서」는 1948년 5월 『신세대』에, 「칠월백중」은 1948년 10월 『문장』에 발표하였다. 그 뒤 『학풍』 1948년 10월호에 발표한 「남신의주유동

27) 안도현, 282면.

박시봉방」이 남한에 발표한 마지막 작품이다.<sup>28)</sup> 그리고 백석이 북한문단에 등장한 것은 1956년 1월 『아동문학』에 발표한 동화시 「까치와 물까치」, 「지게게네 네 형제」를 통해서다. 백석은 “광복 뒤 꾸준한 소련문학 번역을 빌려 북한 문학사회에 들어섰고, 그 일을 바탕으로 어린이문학 창작”<sup>29)</sup>까지 나섰으나 백석은 북한문학의 주류가 되지 못했다.

그런데 천재시인으로 불렸던 백석은 어떻게 동화시를 쓰게 되었던 것일까. 백석의 시가 동화적이라는 것과는 결이 다른, 새로운 창작 장르인 동화시로 등장한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 분단 후 첫 작품이 동화시라는 사실은 여러 가지 추측을 낳았다. 대체적으로 백석이 해방 전후 러시아 문학 번역이라는 중간지대를 거치면서 북한 체제에 동조하는 문학을 피하기 위해 아동문학에 주력하였다<sup>30)</sup>고 보고 있다. 그렇지만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뭔가 부족하다. 이것보다 먼저 백석이 강소천의 동요와 동시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아동문학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아닐까. 강소천은 영생고보에서 백석에게 문학 지도를 받던 시기인 1937년 10월 31일 <동아일보>에 동화 「재봉선생」을 발표하였는데, 강소천이 동화를 창작하게 된 배경에 백석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1939년 2월에 <동아일보>는 신춘 현상응모에서 탈락한 「돌맹이」를 <동아일보>는 이례적으로 연재까지 했다. 그 뒤부터 강소천은 동요보다는 동화창작에 심혈을 기울이게 된다. 전택부는 1936년 5학년 시절을 다음과 같이 기억하고 있다.

백석 선생님은 부임하시어 당시의 문학청년들을 지도하셨다. 그중에서 고순덕과 강소천을 제일 총애하셨다. 영시를 줄줄 외웠던 분이면서도 농촌의 얘기, 들짐승들의 얘기, 특히 산짐승들의 얘기를 수업시간에 많이 들려 주셨다. 또 그는 형식적이고 조직적인 사회에서는 적용하지 않고 제멋대로 자기의 소신껏

28) 안도현, 443면.

29) 박태일, 「백석의 어린이 시론, 『아동문학』연간평」, 『현대문학이론연구』 63, 2015, 192면.

30) 김계곤, 「백석의 아동문학연구」, 『동화와 번역』 14, 건국대학교 동화와번역연구소, 2007.

장정희, 「분단 이후 백석 동시론」, 『비평문학』 45, 한국비평문학회, 2012.

사시는 분이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양립된 세계를 사신 분이이다. 특히 허위와 가식을 모르는 진솔한 분이였다.

당시 운흥리 근처의 조그마한 하숙집에 거주하셨으며 그 집에는 강소천이 매일 찾아왔다.<sup>31)</sup>

백석이 수업시간에 들려 주었다는 ‘농촌애기’, ‘들짐승애기’, 그리고 ‘산짐승애기’는 백석 시의 핵심 소재들이다. 그 ‘농촌애기’, ‘들짐승애기’, ‘산짐승애기’를 학생들에게 들려준 것은 문학 창작에 열을 올리고 있던 강소천에게 영향을 미쳤다. 강소천은 동요와 동화에 이를 적극 수용하였다. 백석도 강소천의 동요시집 『호박꽃초롱』에 「호박꽃초롱 서시」를 쓰기 위해서는 강소천의 모든 작품을 꼼꼼히 읽었고, 강소천의 동요시를 통해 아동문학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백석이 『집계네 네 형제』<sup>32)</sup> 동화시집에서 “이야기 전달을 위해 인물들의 목소리를 시에 배치하여, 회곡적 형식을 추구”<sup>33)</sup>하였는데 그것은 이미 강소천이 동요시집 『호박꽃초롱』에서 보여준 것이다.

백석이 아동문학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 막심 고리끼의 『아동문학론 초』<sup>34)</sup>를 번역하면서 서정시에서 동화시로 변모를 하게 되었다<sup>35)</sup>고 보기도 하지만 「아동문학론 초」보다 동화시를 먼저 발표하였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동화시’는 내용면에서 즐거리가 있으면서 형식 면에서는 시적인 짜임새를 가지고 있어 동화적인 구성으로, 형식을 무시하면 동화의 범주에 들고 내용을 무시하면 장형동시로, 시의 형식에 동화를 담고 있는 장르이다.<sup>36)</sup> 그러므로 백석 동화시는 「호박꽃초롱서시」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 한울은

31) 송준, 『시인백석』 1, 현당나귀, 2012. 282면. 재인용.

32) 백석, 『집계네 네 형제』,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7. 4.

33) 강정화, 앞의 논문. 16면.

34) 백석, 「아동문학론 초」, 『조선문학』, 1956. 11.

35) 강정화, 「해방을 전후로 한 백석 시의 이행 양상 연구」, 『아시아문화연구』 23, 가천대학교아시아문화연구원, 2011.

36) 이재철, 『아동문학개론』, 서문당, 2003, 128-129면.

울과주가에 우는 병아리를 사랑한다.  
우물돌 아래 우는 돌우래를 사랑한다.  
그리고 또  
버드나무 밑 당나귀 소리를 입내내는 시인을 사랑한다.

한울은  
풀 그늘 밑에 샷갓 쓰고 사는 버섯을 사랑한다.  
모래 속에 문 잠그고 사는 조개를 사랑한다.  
그리고 또  
두툼한 초가집을 밑에 호박꽃 초롱 혀고 사는 시인을 사랑한다.

한울은  
공중에 떠도는 흰구름을 사랑한다.  
골자구니로 숨어 흐르는 개울물을 사랑한다.  
그리고 또  
안락하고 고요한 시골 거리에서 쟁글쟁글 햇빛만 바래는 시인을 사랑한다.

한울은  
이러한 詩人이 우리들 속에 있는 것을 더욱 사랑하는데  
이러한 시인이 누구인 것을 세상은 몰라도 좋으나  
그러나  
그 이름이 강소천인 것을 송아지와 꿀벌은 알을 것이다.<sup>37)</sup>

백석은 강소천의 동요시집 『호박꽃초롱』에 있는 동요의 소재와 내용을 이 시에 담았다. 1연의 2행의 ‘울과주가에 우는 병아리를 사랑한다.’는 구절은 동요 「닭」을, 3행의 ‘우물돌 아래 우는 돌우래’는 동화 「돌맹이」를, 5행의 ‘버드나무 밑’은 동요 「버드나무 열매」를 호명하고 있다. 2연의 5행의 ‘호박꽃 초롱 혀고’는 동요 「호박꽃초롱」을, 3연의 3행은 ‘골자구니로 숨어 흐르는 개울물’은 ‘소천’인 강소천을 호명하고 있다. 1, 2, 3연의 각 행을 ‘사랑한다.’로 종결하여 강소천에 대한 지극한 애정과 작품에 대한 관심을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4연에서는 ‘한울’이 사랑하는 ‘그 이름이 강소천’임을 천명

37) 백석, 「호박꽃초롱 서시」, 『호박꽃초롱』, 박문서관, 1941.

함으로써 강소천에 대한 최고의 찬사를 담았다. 「호박꽃초롱서시」는 『호박꽃초롱』의 작품과 강소천에 대한 이야기이며, ‘동화적 구성의 장형동시이자 시의 형식에 동화를 담은’ 동화시라고 할 수 있다. 이것과 관련하여 백석이 동화가 갖추고 있어야 조건과 동화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람들에게 특히 아동들에게 무엇이 좋으며 무엇이 나쁜가를, 무엇이 아름다우며 무엇이 아름답지 아니한가를, 무엇이 참되며 무엇이 참되지 아니한가를 판별하는 충명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세계를 인식하며 신비를 규명하며 사람의 창조적 의지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그 시대 시대의 꿈, 이상, 념원을 표현하기 위하여, 인간의 실제적인 그리고 부단히 성장하는 위력에 대한 동경과 이상을 표현하기 위하여, 인민 대중 속에 있는 긍정적 자질들을 한 주인공에게 부여함으로써 영웅을 형상하기 위하여 모든 자연과 동물(바람, 해, 달, 물, 추위, 더위, 꽃, 열매, 벌, 송냥이, 토끼 등) 그리고 인간의 손으로 창조된 모든 사물을 인격화하여 그것들을 실재물처럼 생존하게 하면서, 환상적 형상 속에 사고하고 행동하게 하는 문학의 한 장르가 곧 동화이다. 그러므로 동화는 생활에 대한, 전체 세계에 대한 현실 관계에서 선량하고 심각한 윤리적 견해를 불러일으키며, 인간, 진리, 선, 아름다운 것, 자기네 인민, 령도자들에 대한 애정의 정신을 넣어주는 것으로 되는 동시에 세계, 로동, 주위의 모든 사물과 인간들에 대한 진정한 시적 관계에서 새로운 시대를 지향하는 모험심과 대담성을 고취하는 것으로 된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현실이 동화를 요구하는 것은 실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동화는 문학으로서의 동화인바, 즉 시정과 철학적 일반화를 동반한 동화이다. 시정으로 충일되지 못한 동화는 감동을 주지 못하며, 철학의 일반화가 결여된 동화는 심각한 인상을 남기지 못한다. 이러한 동화는 벌써 문학이 아니다. 동화의 생명과도 같은 시와 철학은 동화의 여러 가지 특질 속에 나타난다.<sup>38)</sup>

백석이 생각한 동화는 ‘~하기 위하여’에 나타나듯이 어떤 목적을 위하여 ‘모든 대상을 인격화해서 생존하게 하여 환상적인 형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게 하는’ 장르다. 즉, 동화는 ‘현실 관계에서 선량하고 심각한 윤리적 견해를

38) 백석, 「동화 문학의 발전을 위하여」, 『조선문학』, 1956. 6. (김문주 외 엮음, 『백석전집2』, 서정시학, 2012, 125-126면.)

불러일으키며' '인간, 진리, 선, 아름다운 것, 자기네 인민, 령도자들에 대한 애정의 정신을 넣어주는 것'이어야 하며, '세계, 노동, 주위의 모든 사물과 인간들에 대한 진정한 시적 관계에서 새로운 시대를 지향하는 모험심과 대담성을 고취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의 현실'에는 동화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시정으로 충일'하고 '철학의 일반화'를 동화의 기본적인 조건으로 제시하여 동화는 '문학에서 여차적인 것'이 아니며 '인간 교양적 과제 앞에' '비할 데 없는 큰 비중'이 있는 자랑할 장르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런 이론적 토대는 '동화'라는 이야기에 '시'라는 형식을 갖춘 동화시를 창작하는데 몰두할 수 있게 했다.

강소천의 동요에도 동화시의 특징으로 설명되는 인물들 간의 대화가 서사를 이끌어가는 부분이 많고, 웃음과 교훈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서사의 리듬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많다. 특히 강소천 동요의 특징인 '문답식 동요'에서 두드러진다. 이것은 강소천의 동요와 백석의 동화시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이다.

들국화 필 무렵에 갖득 담궜든 김치를  
아카시아 필 무렵에 다 먹어 버렸습니다.

움 속에 묻었던 이 빈 독을  
엄마와 누나가 맛들어  
소낙비 잘 오는 마당 한판에 들어 내놓았습니다.

아무나 알아 맞혀 보세요.  
이 빈 김치 독에  
언제 누가 무엇을 갖득 채워 주었겠네.

그렇다우.  
이른 저녁마다 나리는 소낙비가  
하늘을 갖득 채워 주었다우.

-동그랗고 조고만 이 하늘에도

제법 고-운 구름이 잘도 떠돈다우.

— 「조고만 하늘」 전문<sup>39)</sup>

최태호<sup>40)</sup>는 강소천의 문학을 제1기는 등단부터 해방 이전의 작품, 2기는 1951년부터 1954년까지의 작품, 3기는 1955년부터 생애를 마감한 1963년까지의 작품으로 나누고 강소천의 문학을 아주 간명하게 정리하였다. 제1기는 “이 시기의 동화 「돌멩이」는 동화라기보다는 차라리 동시에 속하며 「토끼 삼형제」는 전래동화적인 소재들에 시적으로 표현했을 따름이다. 「진달래와 철쭉」도 이 시기 생산된 것으로 볼 수 있겠고 거기에는 설화성에 관심이 짙은 것이 주목할 만”하고, 제2기는 “동화창작에 본격적인 흥미를 가지고 아동심리연구와 아동문장에 관심을 기울인 때이다. 대체로 소천의 동화 문장은 산문이라기보다 시에 속하고 설득보다는 감각적인 면이 많았다. 여기에 소천의 노력은 설화에의 방법이었고 또 자신이 동심에 몰입하는 것보다 객관화할 수 있는 자세를 찾는 것이었다.”<sup>41)</sup>고 하였다. 동요 「조고만하늘」은 강소천의 초기 작품이다. 이 작품은 문답식 동요로 서사, 즉 이야기가 있다. ‘빈 김치 독’에 가득 물이 담긴 것을 보고 누가 가득 채웠냐고 묻고 소낙비가 채웠다고 대답하고 있다. 그런데 ‘소낙비’는 ‘빈 김치 독’은 금새 ‘고-운 구름’ 잘도 흘러 다니는 하늘이 된다. 향아리의 물에 비친 하늘을 환상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동화시라고 할 수 있다.

백석의 동화시와 강소천 문답식동요에는 인물간의 주고받는 대화, 이야기

39) 강소천, 「조고만 하늘」, 『호박꽃초롱』, 1941.(이 작품은 『아이생활』, 1939년 8월 호에 「하늘」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고, 시집에는 시형이 변형되어 실렸다.)

40) 최태호(1915~1987)는 경성사범학교를 졸업하고, 문교부에서 교과서 편찬을 하던 중 부산에서 월남한 강소천을 문교부장관 비서실장이었던 영생교보 동창인 박창해가 소개시키면서 인연이 지속되었다. 최태호는 1952년에 동화 작가로 등단하였고 1961년에는 수필가로 등단하였으며 이후 번역문학가로도 활동하였고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편찬위원으로도 참여하였으며 이후 서울교육대학 교수와 국립중앙도서관 관장, 강원도 춘천교육대학 학장과 서울 성동여자실업고등학교 교장을 지냈다.

41) 최태호, 「천부의 아동문학가」, 『현대문학』, 1963. 6.

가 있다. 남과 북에서 따로 창작활동을 한 이들의 문학적 상관성은 백석과 강소천의 문학적 지향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준다. 아래는 백석의 동화시 「오징어와 검복」이다.

오징어는 맨 처음  
농어 보고 물었네  
(내게는 왜  
뼈가 없나?  
어찌하면  
뼈를 얻나?)  
농어가 그 말에 대답했네-  
(너는 세상 날 때부터  
뼈가 없단다,  
뼈 없이 그대로  
살아가야지.)

— 백석, 「오징어와 검복」 전문

백석이 말한 “시는 깊어야 하며, 특이하여야 하며, 뜨거워야 하며 진실하여야 한다.”<sup>42)</sup>는 것이 확인되는 동화시이다. ‘오징어’가 ‘농어’에게 어떻게 하면 뼈를 얻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그러자 ‘농어’는 세상에 날 때부터 뼈가 없었으니 그대로 살아가라고 대답한다. ‘오징어’와 ‘농어’가 주고받는 대화, 즉 인물들 간의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대답하는 것은 강소천의 문답식 동요와 다를 바가 없다. 시라는 형식에 일상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인물 간의 대화는 이야기가 되어 동화시라는 새 장르의 전형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백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셈이다. 그가 비록 북한체제의 파고를 넘지는 못하였으나 북한의 아동문학의 형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간과할 수 없는 성과다.

애!

42) 백석, 「동화 문학의 발전을 위하여」, 『조선문학』, 1956. 5. (김문주 외 엮음, 『백석전집2』, 서정시학, 2012, 151면)

넌 오늘 어디가 멀 했니?  
 나?  
 길 거리에서 바람개비 돌렸지.  
 그래 넌 오늘  
 어디가 멀 했니?  
 난 오늘 공중에서  
 연 올렸지.  
 애!  
 오늘 밤엔 너 멀 할테냐?  
 나?  
 숲 속에 들어가 소롯이 자겠다.  
 난두  
 아 고단하다  
 아 다리 아프다.

— 「바람」 전문43)

이 동요는 인물들 간에 묻고 대답하는 문답식이다. 이때 대답하는 묻는 인물도 ‘바람’이고, 대답하는 인물도 ‘바람’이다. 친구 간에 ‘오늘’ 무엇을 하며 지냈냐고 안부를 묻고 대답하는 어린이들의 일상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하다. 재미있게 묻고 답하는 방식을 취하여 ‘바람’을 인격화함으로써 환상적인 분위기를 만들었다. ‘오늘’ 무엇을 했냐는 바람(1)의 물음에 ‘나’는 ‘길거리에서 바람개비’ 돌렸다고 대답한다. 그런 다음 ‘나’인 바람(2)은 친구인 바람(1)에게 ‘너’는 뭐했냐고 묻자, ‘너’인 친구 바람(1)은 ‘공중에서 연’을 올렸다고 대답한다. 그리고 친구 바람(1)인 ‘너’는 ‘나’인 바람(2)에게 ‘오늘밤’에는 무엇을 할 거냐고 묻자, ‘나’인 바람(2)은 ‘숲속에서 소롯이 자겠다’고 대답한다. ‘너’인 친구 바람(1)도 ‘고단’하고 ‘다리 아프다’며 똑같이 쉬겠다고 한다. 정리하면 저녁 때 친구를 만나서 하루 일과를 이야기한 다음 밤에는 피곤하니 푹 쉬겠다고는 것이 주된 이야기이다. ‘바람’이라는 자연 현상을 인물들 간의 대화로 설정하여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선명하게 이미지화했다. 이 작품 역시 백석의 동화시 계열에 놓아도 무방할 것이다.

43) 강소천, 「바람」, 『아기네동산』, 1938.

강소천은 아동문학에 대한 과소평가를 경계하면서 “동요가 시와 겨루지 못하고 동화가 소설과 겨룰 수 없다”는 김동리의 견해에 대해 “아동문학이 자기를 위한 문학이 아니고, 아동을 위한 문학이라면 ‘약점’이 아니고 ‘특수성’이 되며 성인문학보다 한층 어려운 것”<sup>44)</sup>이라고 주장, 문학의 한 형식으로 아동문학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였다. 공교롭게도 강소천은 북한에서는 어린이 잡지 『아동문학』 창간호부터 작품을 발표하였고, 남한에서는 제호가 같은 『아동문학』을 1962년 10월에 창간했다. 그리고 생을 마감하기 전에 『아동문학』 1963년 5월호까지 출판 준비를 완료해 놓고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백석과 강소천은 문학적으로 영향관계를 주고받으면서 스승과 제자로서, 한 길을 걸은 문학인으로 남게 되었다.

#### 4. 결론

그동안 연구에서 논의 되지 않았던 백석과 강소천의 관계를 따져 볼 필요성을 제기됨에 따라 백석과 강소천의 문학적 인연과 생애를 중심으로 그들의 문학적 행로와 문학적 상관성을 밝혀보았다.

백석과 강소천의 관계를 논하면서 백석이 「호박꽃초롱 서시」를 쓴 것은 서신을 통해서였을 것으로 추정해 왔다. 그러나 강소천의 동요시집 『호박꽃초롱』에 백석이 「호박꽃초롱 서시」를 쓰게 된 것은 백석과 강소천이 만주에 함께 있었고, 이 때 백석은 강소천의 동요시집 『호박꽃초롱』을 발간하는데 직접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확인하였다. 그것은 백석과 강소천이 <만선일보>에 작품을 발표한 시기와 <만선일보>에 실린 『호박꽃초롱』에 대한 서평 등이 근거가 되었다. 그리고 해방 후 북한의 고향으로 돌아간 백석과 강소천은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에서 백석은 외국문학 위원, 강소천은 아동문학 위원으로 북한문단에서 활동하였고, 이후 백석은 아동문학작품으로

44) 강소천, 「아동문학의 특수성」, 『아동문학』 창간호, 1962, 11면.

북한문단에 등장하였지만 체제에 순응하지 않음으로써 창작활동은 끝이 났고, 강소천은 1.4후퇴 때 월남하여 남한 문단의 주류로 창작활동을 이어나갔다. 한국전쟁은 백석과 강소천에게 배제와 선택의 논리로 작용함으로써 창작활동의 생명이 결정되고 말았다.

백석이 제자였던 강소천에게 영향을 미쳤듯이 백석도 강소천의 영향을 받았는데 동화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강소천 동요의 특징이 문답식동요인데 백석의 동화시도 문답식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강소천이 영생고보 재학 때부터 동화를 썼고, 이때 백석은 동화에 대한 장르를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시라는 형식에 이야기를 담은 동화시의 세계를 연 것이다. 이상으로 백석 동화시와 강소천의 동요와 동화를 통해서 그들이 주고받은 문학적 상관성을 확인하였다. 이 외에도 소재와 주제 차원의 또 다른 문학적 상관성을 밝히는 일은 다음으로 미루어 둔다.

## 참고문헌

- 강소천, 『호박꽃초롱』, 박문서관, 1941.
- 강정화, 「해방을 전후로 한 백석 시의 이행 양상 연구」, 『아시아문화연구』 23,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원, 2011.
- 김문주 외 엮음, 『백석전집2』, 서정시학, 2012.
- 김윤식, 「땅끝 의식과 가부장제-멀다원시대와 실존무」, 『김동리와 그의 시대』, 민음사, 1995.
- 김제곤, 「백석의 아동문학연구」, 『동화와 번역』 14, 건국대학교 동화와번역연구소, 2007.
- 박경수, 「「만선일보」 소재 동시연구」, 『우리문학연구』, 우리문학연구회, 2013.
- 박덕규, 『강소천평전』, 교학사, 2015.
- 박태일, 「백석의 어린이 시론」, 『아동문학』연간평, 『현대문학이론연구』 63, 2015.
- 백 석, 『집계네 네 형제』,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7.4.
- 송 준, 『시인 백석』 1, 횡당나귀, 2012, 278면.
- 안도현, 『백석평전』, 다산책방, 2014.
- 이재철, 『한국 현대 아동문학사』, 일지사, 1978, 325면.
- 이재철, 『아동문학개론』, 서문당, 2003, 128-129면.
- 임종국, 『일제침략과 친일파』, 청과, 1982, 00면.
- 장정희, 「분단 이후 백석 동시론」, 『비평문학』 45, 한국비평문학회, 2012.
- 최태호, 「천부의 아동문학가」, 『현대문학』, 1963. 6.

【Abstracts】

## A Study on Literary Correlation Between Poets: Baek Seok and Kang So Chun

Lee Dong-sun

The present study is aimed to examine the literary relation and life of poet Baek Seok and Kang So-chun, and to demonstrate their literary influence and correlation. Researching their relationship, scholars who are studying them have said that When the relationship between Baek Seok and Kang So-chun, they have assumed that Baek Seok wrote the work 'Prologue of Jack-o'-Lantern' in his letters, but Kang So-chun's 'Jack-o'-Lantern', which is a collection of poems for children, proved the reason why Baek Seok wrote 'Prologue of Jack-o'-Lantern'. The very reason is that Baek Seok was with Kang So-chun in Manchuria and Baek Seok got directly involved in the publication of Kang So-chun's 'Jack-o'-Lantern'. Although their fate of creative literature had been determined according to the logic of exclusion and selection at the outbreak of Korean Civil War, their literary works vividly show their influence over each other.

It seems that Baek Seok had been influenced from his pupil Kang So-chun as much as the former has done on the latter. As Kang So-chun wrote children's stories and lyrics for children's songs, it can be conjectured that his master Baek Seok had also been interested in children's literature since he taught Kang So-chun. Particularly,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children's songs that Kang So-chun wrote is a

question-answer form. The children's poems by Baek Seok are in a question-answer style while the contents form a children's story. This can be interpreted as Kang So-chun's influence over his master's literature. Besides, there are literary correlations between these two writers in subjects and themes, which will be examined in a subsequent study.

Key words : Baek Seok, Kang So-chun, children's poem, children's song, North Korean literary world, literary correlation

이 논문은 2016년 9월 3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6년 11월 4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6년 11월 9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